

신입생의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1. 입학의 중요성

입학이란 인생의 중요한 단계이다. 입학은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입학은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입학은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2. 80학년도 대학생활의 특징

80학년도 대학생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측면에서는 전공학문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강조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용적 능력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생활이 권장되고 있다.

피지배계급 대변하는 "민주세력"

자주-민주-통일-지향의 민주세력

민주세력은 자주-민주-통일-지향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은 피지배계급을 대변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세력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전공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전공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민주세력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민주세력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민주세력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민주세력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민주세력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민주세력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민주세력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민주세력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민주세력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민주세력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민주세력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민주세력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3.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측면에서는 전공학문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용적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4.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

1. 대학이란 무엇인가
2. 합리적인 사고와 인식
3. 현대적 한국사회의 현실이해
4. 80년대의 학생운동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합리적인 사고와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대적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80년대의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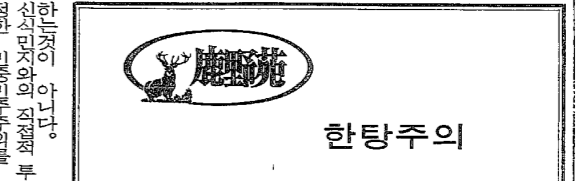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한탕주의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탕주의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한탕주의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한탕주의는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한탕주의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한탕주의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한탕주의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탕주의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한탕주의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한탕주의는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한탕주의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한탕주의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한탕주의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측면에서는 전공학문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실용적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생활이 필요하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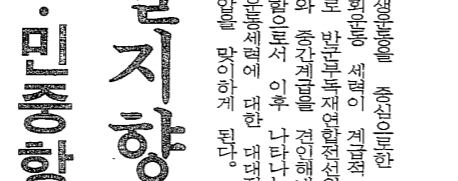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실용적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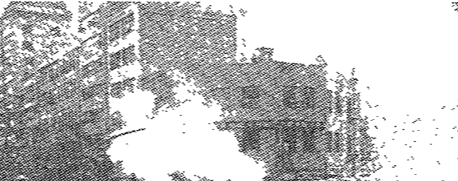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그들은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학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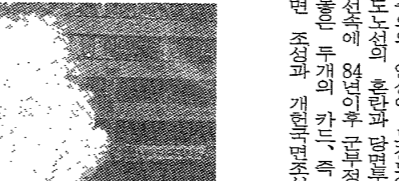
80학년도 대학생활의 과제는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그들은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학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이념의 분리를 벗어났고, 사회운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이념의 분리를 벗어났고, 사회운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은 이념의 분리를 벗어났고, 사회운동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군기본교육소집

(88년 교내정신교육)

본 교육소집통지서는 5개 대학원 예비군(교직원및 장교 포함)에 한하여만 일차적으로 통보(공고)하는 교육소집입니다.

학부학생의 교육입자는 추후통보(공고)하오니 착오없이 기 바랍니다. (1988년 5월 실시예정)

향토예비군실지법 제6조및 동시행령13조의 의거, 88년도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함

1. 교육학급

5개대학원 예비군학생및 교직원 (1988년 1학기입학및 부학생포함)

2.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자

가. 88년1월1일 이후 전역한 예비군(예비역및 실용필보생일)

나. 88년1월1일 이후 병역준비중인 자

다. 병정관리자(사별)로서는 만34세, 88세 및 미필보생일

3. 교육일자

시간: 1988년 5월 17일(토)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18일(일)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19일(월)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20일(화)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21일(수)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22일(목)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23일(금)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24일(토) 08:00~12:00

시간: 1988년 5월 25일(일) 08:00~12:00

SLE

INTENSIVE ENGLISH CONVERSATION PROGRAM

Placement Test매월 20일부터 (1시, 2시, 3시) 3회

PAGODA LANGUAGE SCHOOL
274-4000/6821-2

金小葉詩集

발간 석 달만에 7판 발행

남을 그리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를, 영혼으로 만나는 승화된 사랑의 詩美

그대는 별로 뜨고

文學世界社 (764) 2672

軍 · 행정 · 모 집 · 차 트

이 시대의 내면에 서린 끈끈한 정을 발골, 인간이기를, 오직 인간이기를 추구하는 산문시인 윤재천 교수의 수필로 쓴 체험론

나뉘고 나뉘어도 하나인 우리를 위하여

尹在天 隨筆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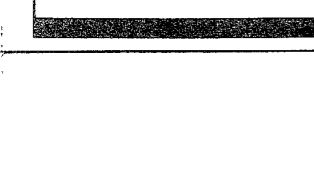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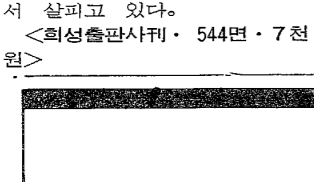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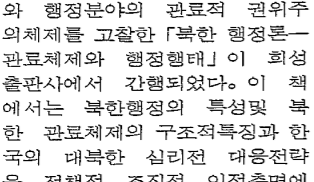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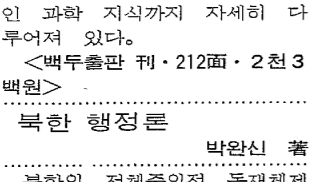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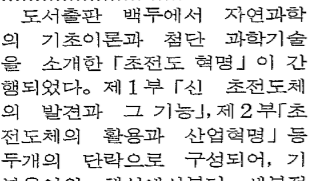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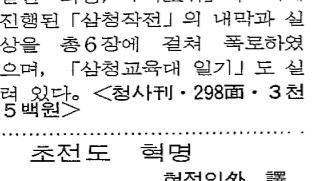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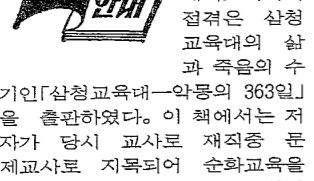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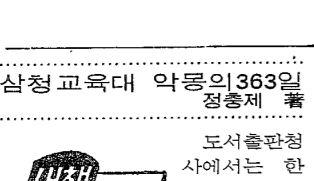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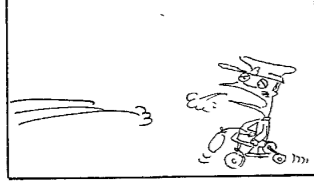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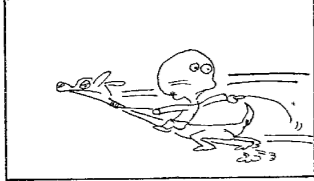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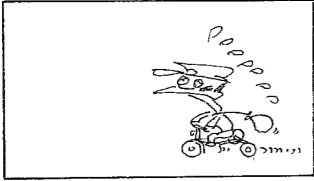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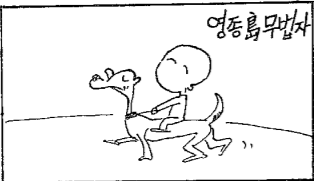
732-5346
735-3771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장

1988년 3월 22일

여로니모

오 <58>



재민문학

우리의 시문학을 소개하는 창간호

주최: 재민문학회
 편집: 김기영
 발행: 김기영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길 11-11 (남대문시장) 재민문학회
 전화: 02-376-1111
 우편번호: 150-000

이달의 시

길은 멀다 친구여

李時英詩集

서정시의 엄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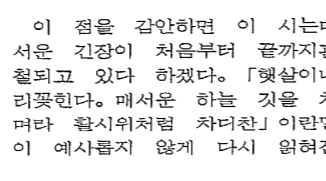
다고 생각되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 마지막 행에서 아무런 지 않게 써넣은 듯한 「침버림」이란 말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좌절 혹은 절망의 이미지와 짝을 이루는 말인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침버림 침버림 하는 외성어가 연상시키는 것은 오히려 심상한 유년과 봄기운이기 때문이다.

어서 「겨울 강 물살 위」가 제목이다. 겨울이라는 것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 강이며 그 강은 실재적 내용은 물살이다. 시인이 시를 통해 드러내려는 엄연한 현상적 자연이지만 그의 눈은 그 현상 너머를 아니 그런 상의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모습이 날아 오르다가 다시 앉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리의 모습전체를 드러내줌으로써 보다 넓은 인식의 지평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전면에 당당하게 도달한 시인의 전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들은호른다. 물살이라는 말 자체가 들과 새이라는 말이 합쳐져 읽임으로써 어딘지 근근근근하고 근근이 또 탄력있는 생명의 약여한 움직임이 절절히 느껴져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는 오히려 낯익은 편이다. 그의 시집 전체를 통해서 혹은 「滿月」 「바람 속으로」의 시집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견지해온 시적 사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영무의 표현처럼 그는 단행서정시의 한 경지를 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이시영은 말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가꾸고 있는 엄격한 서정시인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 시는 때론 긴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되고 있다 하겠다. 「가을이내 리워진다. 매서운 가을을 치며 달아나기」와 「침버림」이란 말이 예사롭지 않게 다시 얹혀진 것이다.

“상투적인 서정시가 아닌, 역사의 전면에 당당하게 도달한 시인의 전투성을 드러내는 전투적 서정시다.”

그러나 그가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는 가능하기」라는 절판 앞에서 늘상 가능하다는 대답을 하고 있는 시인은 아니라 절도 유념하여야 한다. 「滿月」이 바로 단행서정시라 부를만한 시를 품었음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시집은 단행 서정시와 단행서정시의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사람을 찾습니다.

1. 우리들의 「잃어버린」을 애도함 오늘날 우리들의 「부사」는 소식이 없다. 문득 열서같은 그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가혹하고 잔혹 눈에는 80원어치의 소식을 증여하는 보물공부하는 재경이의 수다스러움, 아르바이트한다는 민자의 스캔들이 개어 있기도 하지만 정작 기다리는 우리들의 「부사」는 언제나不在이다. — 사람을 찾습니다. 비록 그를 키에 붙들지 않는 얼굴. 때론 비좁은 캠퍼스를 관망하게 그려나 본노할까 아는. 싸움은 아름다움이란 어느 시인의 말을 심판처럼 외고 다녔던 우리들의 「부사」. 분노하기 위해, 낮아지기 위해, 버림받기 위해, 자유를기 위해, 해방되기 위해 가버린... 그 사람을 아십니까? **오늘의 비내림을 사랑하며** 서두나 나는 파스칼에 목말랐다. 槲木의 가지들, 향토의 풀밭, 그리고 습습한 내 가슴속을 정서할 한 뼘은 온기가 뭉뚝된다. 비내림은 손끝에 아련한 파스칼이다. 그리하여 푸드리고, 덩어리 생명을 일깨운다. 나는 알지. 오늘 저렇게 내리는 비는 곧 비어있던 나무에 수액을 오르게하고 겨울잠에 들었던 새들을 피우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들의 「부사」여, 생각나는가? 지난 여름, 그 비무하고 지저리도 못사는 참, 어느 허물한 문턱에 달랑하고 자실었어 얼었던 나무의 근골을 핏줄... 마치 살아야 한다는 정당한으로 더듬어 찾아오는 백성들의, 지저리도 못난 이 땅 사람들의 배고픔처럼. 「부사」는 어느 날, 그들의 험악함에 소주처럼 진한 눈물을 떨구고 자신의 안락함을 고해성사하고 그들의 고통과피눈물로 세계를 덮고 있는 빗줄기

가 되었다. 일깨우기 위해 그들 언저리에서. **오늘의 비내림을 사랑하며** 공 무한한 희열의 생명들을 피울 것이요, 농악에 절인 콩나물을 먹고 만족하게 웃을 것 받이다. 그저 평등하게 골고루 어둡다.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밤**의 정막은 차라들 속에서 빠져 나온 희색의 공기들을 폐할 것이요, 농악에 절인 콩나물을 먹고 만족하게 웃을 것 이요, 율리워진 어느 판지촌의 담벼락에도 내릴 것이다. 그저 골고루 내릴 것이다. 버스정류장 가 보았어. 기다릴 사람은 없지만 기다림과 만나기 위해서 육중한 몸체를 가진 먼지들은 보라색 버스들이 이르러리 나뭇그늘의 정점에서 나는 함께 그들과 만날 수 있었어. **가끔 비를거리며** 종점으로 왔어는 차안에서 우우우우 우리들의 가난한 삶들이 줄을 잇고 포장마차의 흔들거리는 뒷좌석. 그 곳에도 변함없이 어둠은 내려. **IV. 그리고...** 또 오늘날도 그에게선 소식이 없다. 이미 지워진 그의 이름. 그러나 난 오늘날 우리들의 「부사」가 이 땅 어느 곳에 존재해 있음을 믿는다. **그리하여 어느날**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이 찾아올 때, 이 땅에 희망의 새싹이 움터올 때, 우리들의 「부사」는 머릿상 부사사 아닌 한사람의 평범한 한유자로서 진정한 웃음을 띠고 돌아올 것을 믿는다. **비좁은 캠퍼스를 관망하게** 서두나 나는 파스칼에 목말랐다. 槲木의 가지들, 향토의 풀밭, 그리고 습습한 내 가슴속을 정서할 한 뼘은 온기가 뭉뚝된다. 비내림은 손끝에 아련한 파스칼이다. 그리하여 푸드리고, 덩어리 생명을 일깨운다. 나는 알지. 오늘 저렇게 내리는 비는 곧 비어있던 나무에 수액을 오르게하고 겨울잠에 들었던 새들을 피우게 하리라는 것을. 우리들의 「부사」여, 생각나는가? 지난 여름, 그 비무하고 지저리도 못사는 참, 어느 허물한 문턱에 달랑하고 자실었어 얼었던 나무의 근골을 핏줄... 마치 살아야 한다는 정당한으로 더듬어 찾아오는 백성들의, 지저리도 못난 이 땅 사람들의 배고픔처럼. 「부사」는 어느 날, 그들의 험악함에 소주처럼 진한 눈물을 떨구고 자신의 안락함을 고해성사하고 그들의 고통과피눈물로 세계를 덮고 있는 빗줄기



이 사실이 아닌가는 의혹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바로 「워싱턴 포스트」지의 20일자 보도이다. 『최근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최근의 폭로사태는 全前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채 全前대통령의 추종세력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신문은 「국가원로자문회」를 둘러싸고 정치투쟁이 벌어졌고 全前대통령의 美蘭발은 정치적 영향력의 상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머지않아 그의 영향력은 상실될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무려 7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며 비리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은 되었다지만 이것이 특기자의 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앞으로 이의유사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오즈를 향한 이는 「용신마피아」라는 신조어가 나올고 있다. 마피아라고 하면 미국의 경우, 야간의 최고 권력 조직이자 악의 소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용신마피아란 것은 全前대통령이 용신사에서 근무했던 적이있었는데 이후 全前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경찰조직이 점차 비대화하고 함께 치안본부장과 같은 수뇌부의 대다수가 용신사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데서 나온 얘기인 듯하다. ▲또한 全前대통령이 「새마을중앙본부」와 깊은 관련을 맺었는데 대체로 두가지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지지가반이 미약했던 5공화국의 실력자들이 자금 공급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추측. 다른 하나는 全前대통령의 처가쪽에서 일명 「관순」이라고 불리우는 돈을 끌어모으고자 여기에 부질세라 방법을 강구한것이 「새마을중앙본부」 쪽이었다는 추측이다. 통기야 어떻든간에 「새마을중앙본부」는 7년여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감사한한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제 본분(?)을 다해온 것이다. ▲이와같이 은폐되고 급기시되어 왔던 비리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데는 무슨 연고가 있는듯 하고 있다. 風靡에 의하면 前·現職간의 압구가 벌어지고 있다고들 한다. 예를들자면 총선시기를 당초 2월말시 주장에서 쉽게 풀려서 내달 28일경까지 늦춘 정 부여당의 속사정에는 공천권을 둘러싼 모종의 압구가 있었던듯 하며, 「국가원로자문회」의 비 대화를 둘러싸고 별기류가 흐르는가 하면 이번 「새마을중앙본부」의 비리사실을 노골적으로 공개하는것은 단순한 구시대 유행의 청산작업이 아니라 내용물이다. 이것은 내용

삼청교육대 악몽의363일

도서출판청사에서 한 해지교사가의 접점은 삼청교육대의 삶과 죽음의 수를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당시 교사로 재직중 분체교사로 지목되어 순화교육을 받은 과정, 「죽보위」에 의해 진행된 「삼청자전」의 내막과 실상을 총6장에 걸쳐 폭로하였으며, 「삼청교육대 입기」도 실려 있다. <청사제 298면·3천5백원>

초전도 혁명

도서출판 백두에서 자연과학의 기초이론과 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한 「초전도 혁명」이 간행되었다. 제1부 「신 초전도체의 발견과 그 기능」, 제2부 「초전도체의 활용과 산업혁명」 등 두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기본용어의 해설에서부터 세부적인 과학 지식까지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백두출판 권·212면·2천3백원>

북한 행정론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행정분야의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고찰한 「북한 행정론—관료체제와 행정행태」이 최성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북한행정의 특성 및 북한 관료체제의 구조적특징과 한국의 대북한 심리전 내용전략을 정책적, 조직적, 인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최성출판사 권·544면·7천원>

“55분만 있습니다”

생용의 김과장에게는 55분만 있습니다. 그는 고개과의 약속을 언제나 5분 먼저 지키기 때문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돌아가는 우리네 사회생활 — 언제부턴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틈새로부터 커다란 독이 무너지듯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서부터 불신의 벽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있는 기업을 가꾸어 가는 생용의 시계에는 언제나 55분만 있습니다.

SSANGYONG 생용